

뉴스 라운드업

- 미·일 엔화 방어 공조개입 단행, 오늘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이 워싱턴과 공동조치 공식 발표 예정
- 트럼프 대통령 이란 추가공습 보류 시사에 겔프 증시 반등, 국제유가는 지난 금요일 배럴당 84.67 달러로 상승 마감
- 연준 매파 지역총재 3 인 인상 필요성 주장 속 미 10 년물 금리 4.718%로 급등, 9 월 인상 확률 73%까지 반영
- 중국인민은행 팬더본드·해외중앙은행용 환매장구 신설 등 선별적 완화 시사, 미·EU 무역협상 앞두고 경제모델 고수 방침 재확인

이란 리스크 완화와 엔화 공조개입에도 연준발 금리 상승 압력이 시장 서사를 지배했다

지난 주말 가장 큰 이벤트는 엔화 방어를 위한 미·일 공조개입이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실시된 개입으로 달러/엔은 163 엔대에서 157 엔대까지 밀렸고, 일본은행 자료 기준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590 억달러 규모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재무부도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며 공동 대응 성격을 분명히 했다. 오늘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미국과의 공동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40 년래 최저 수준까지 밀렸던 엔화 약세에 대한 정책 대응 의지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개입이 근본적인 엔화 반등보다 되레 달러/엔 매수 진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도 만만치 않다.

중동 정세는 주말 동안 긴장과 완화 신호가 교차했다. 지난 토요일 쿠웨이트군은 부비안 섬 인근 정부시설과 민간기업 차량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했다고 밝혔고,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확전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가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이 소식과 실적 호조가 겹치며 겔프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국제유가(WTI)는 이런 주말 흐름이 반영되기 전인 지난 금요일 배럴당 84.67 달러로 1.29% 오른 채 마감한 상태여서, 트럼프의 완화 발언에 따른 유가 되돌림 여부는 오늘 개장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닛케이·코스피·CSI300·항셍 등 아시아 증시의 지난 금요일 마감가 역시 이날 오후 이미 확정된 수치인 만큼, 주말 사이 나온 이란 완화 신호와는 아직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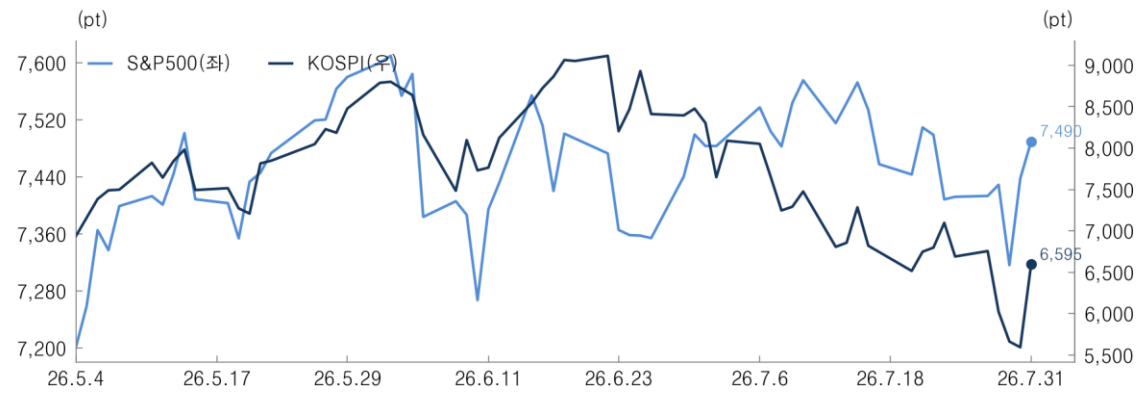
한편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매파적 재료가 쌓이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 클리블랜드·미니애폴리스·댈러스 등 3 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 10 년물 국채금리는 4.718%(+4.5bp)로 오르고 30 년물은 19 년래 최고치에 근접했다. 선물시장은 9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73%까지 반영하고 있어, 인하 기대가 아닌 인상 우려가 채권시장의 주된 서사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이는 최근 확인된 근원 개인소비지출(Core PCE) 3.3%,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 2.6% 등 실물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우리 하우스의 리플레이션(Reflation) 국면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금리 상승에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과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 각각 0.70%, 1.00% 오르며 위험선호가 견조했고 변동성지수(VIX)도 16.0 까지 낮아져, 성장 낙관과 물가 상방 압력이 동반되는 전형적인 리플레이션형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중국인민은행은 팬더본드 발행 지원과 해외중앙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레포) 창구 신설 등 선별적 유동성 공급 방안을 예고했는데, 총량 완화보다는 정밀 타깃형 대응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되며, 미·EU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과잉생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났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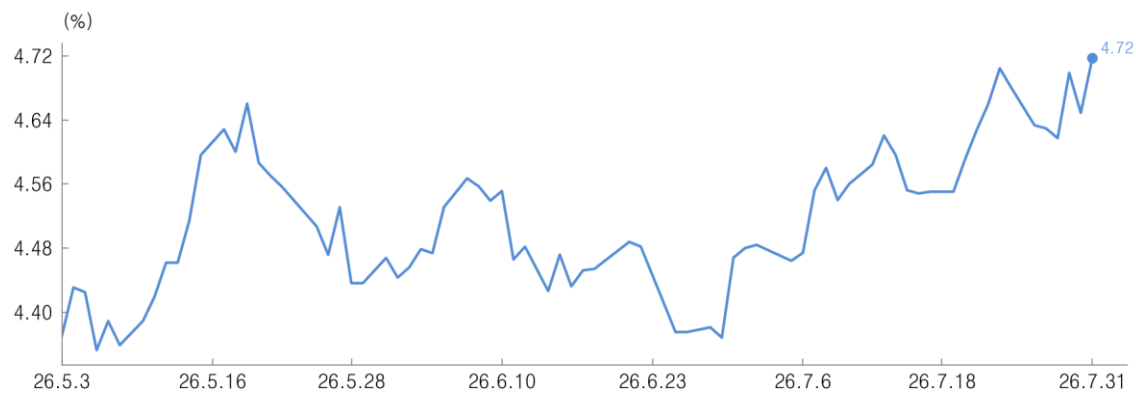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489.72	+0.70%	7/31 종가
	나스닥	25,373.85	+1.00%	7/31 종가
	STOXX 600	649.20	-0.12%	7/31 종가
	닛케이 225	64,361.80	+4.03%	7/31 종가
	CSI 300	4,588.20	+0.85%	7/31 종가
	KOSPI	6,595.45	+17.91%	7/31 종가
	항셍	25,884.43	+0.10%	7/31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80	-0.16%	7/31 종가
	달러/엔	157.55	+0.05%	8/3 종가
	유로/달러	1.15	+0.15%	8/3 종가
	달러/원	1,442.07	+1.39%	7/31 종가
	달러/위안	6.75	-0.05%	7/31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18%	+4.5bp	7/31 종가
	미국 2 년	4.262%	+1.2bp	7/31 종가
	일본 10 년	2.791%	-1.1bp	7/31 종가
	독일 10 년	3.209%	+5.5bp	7/31 종가
	한국 10 년	4.262%	-5.3bp	7/31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84bp	-3.0bp	7/30 종가
원자재	WTI	84.67	+1.29%	7/31 종가
	금	4,041.18	-1.49%	7/31 종가
	구리	6.47	-0.14%	7/31 종가
변동성	VIX	16.00	-6.32%	7/31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미국 뉴스 64 건 HIGH	• 이란 폭격 계획 보류, 트럼프 빠른 핵협상 조건으로 기조 전환—골프 증시 상승 ↳ 금요일 CBS 보도: 미국·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기반시설 폭격 작전 계획 (주말 중 단행 가능)—트럼프 최종 승인 대기 ↳ 어제 트럼프 신호 전환: 이란의 핵 야심 신속 억제·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조건으로 추가 공격 자제 의사 표명 ↳ 시장 반응: 사우디 벤치마크 지수(TASI) 1.1% 상승, 기업 실적 호조 추가 지원 • 미국 재무부, 엔화 직접 매입 개입—10 년 이상 만에 처음 ↳ 베센트 재무장관, 캠프데이비드 내각회의 메모에 \$50~100 억 규모의 엔화 매입 기록 (사진 촬영으로 노출) ↳ 미국 재무부 공식 개입—뉴욕 Fed 가 유로 매도해 엔화 매입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경유) ↳ 배경: 엔화가 40 년 만에 최저 근처까지 약세, 일본 당국의 선제 개입에 미국 협조 강화 • 연준 의장과 매파 총재, 금리 정책 신호 엇갈림—인상 필요성 놓고 분열 ↳ Warsh 의장: 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하다는 강한 발언 (기자회견)—시장이 신뢰도 우려 제기 ↳ 매파 총재 3 명 (Cleveland Fed 의 Hammack, Minneapolis Fed 의 Kashkari, Dallas Fed 의 Logan) 반발: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금리 인상 필수 ↳ St. Louis Fed 총재 Musalem: 조기의 점진적 인상이 후발 급격한 인상보다 비용 효율적—조기 인상론 지지 •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 19 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폭도 기록—이란 긴장·연준 불확실성 복합 ↳ 수익률 수준: 30 년물 약 5.24% (19 년 만에 최고), 10 년물 약 4.73% ↳ 월간 상승: 30 년물 29bp 이상 (2024 년 12 월 이후 최대), 10 년물도 2026 년 3 월 이후 최대 ↳ 요인: 이란 군사 리스크 + 연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인상 vs 인상 거부 신호 엇갈림) • 중국, 신장 강제노동 지정 '근거 없다' 강하게 반박 ↳ 중국 상무부: 미국의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기업 리스트 추가에 '사실 근거 없다' 반박 ↳ 비판 내용: 미국의 국내법 일방 제재는 경제 강압의 전형, 기업의 정당한 권리 침해 주장 ↳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교란 우려 제기
유럽 뉴스 14 건 HIGH	• 유로존·미국 장기채 수익률, 7 월 3 개월 만에 최대 상승 — 시장 ECB·Fed 상반기 각 2 회 인상 가정 ↳ 지난 금요일(08-01) 장기 수익률이 단기를 압도하며 상승, 중동 지정학 위험(이란 유조선 사건)이 유가와 함께 채권 수익률 견인 ↳ 시장이 2027 년 상반기까지 유럽중앙은행(ECB)과 미 연준(Fed) 각각 2 회 금리 인상을 반영 중 ↳ 일본은행(BOJ)은 금리 현수준 유지로 일본 국채(JGB) 보합 마감 • 이탈리아, 세우타 난민 위기로 스페인과의 EU 쟁건 협약 1 개월 중단 ↳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도시 세우타로 대량 유입된 난민 대응 조치

권역	요약
	↳ 직접 육상 국경이 없지만, 항공·해상 이동 시 여권 검사 재개 ↳ 이탈리아가 프랑스와도 이탈로-프랑스 육상 국경 통제 강화에 합의 • 영국 재무장관 힐리, 각료에 예산 감축 지시 — 차입규칙 준수 공약 ↳ 10월 28일 첫 예산 편성, 차입규칙 준수 고수 ↳ 각료에 신규 예산 불가를 통보, 기술·인프라 확대 계획 자체 재원조달 필요 • 파운드, 금리인상 기대·정치 안정성으로 7월 1% 이상 월간 상승 ↳ 지난 금요일 달러 대비 \$1.344로 0.2% 하락했지만, 주간·월간 상승세 지속 ↳ 유로 대비 포함 마감, 2개월 연속 월간 상승 ↳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은 영국이 상대국 대비 비교우위 개선 • 영국 중앙은행 경제담당 이사 필, 에너지발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 지난 목요일(07-31) MPC(통화정책위원회) 금리 현수준 유지 결정에 3명 반대, Huw Pill이 인상 투표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신호 ↳ 중앙은행의 2% 물가목표 신뢰는 아직 '상당한 약화(deanchoring)' 단계 미도달 가운데, 장기적 압력 누적의 위험 경고 • BPM의 몬테파스키 인수 포기, 인테사의 €350억 입찰 우위 확정 ↳ 프랑스 Credit Agricole의 주요 지분사 BPM이 인수 협력 중단 선언 ↳ 대형은행 인테사 산파올로(Intesa Sanpaolo)가 €350억 입찰로 우위 선점 ↳ 몬테파스키(Banca Monte dei Paschi)는 대체 방안 모색 중 • 유럽 주요 강 기록적 저수위, 수력발전·화물 운송·기업 수익 감소 ↳ 기록적 고온·불규칙한 강우로 유럽 전역 가뭄 심화, 유럽은 전 지구에서 가장 빠른 온난화(warming)를 겪는 중 ↳ 수력발전 감소, 곡물·석유 강 운송 차질 ↳ 강 운송 의존도 높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 노보 노르디스크, 심혈관 신약 임상 3상 실패 — 비만·당뇨 의존도 심화 ↳ 덴마크 제약사 지난 금요일 실험 신약(ziltivekimab) 후기 임상시험 결과 이득 미입증 공시 ↳ 주가 금요일 306.50 덴마크 크로네로 7.3% 하락, 3분기 비현금성 손상비용 발생 예정 ↳ 해당 신약 2건 추가 시험은 계속되며 2027년 상반기 결과 예상, 애널리스트들은 비만·당뇨 외 영역 진출 가속화 강조 • 스페인 1~5월 재정 적자, 1.03% GDP로 개선 (전년 동기 1.16%) ↳ 중앙정부·사회보장·광역자치단체 기준(시 제외) 산출 ↳ 4월까지 누적 0.26% GDP • EU 탄소배출권 2026~2027년 가격 전망 인하 — 집행위 개혁안 산업 압력 완화 ↳ EU 집행위의 배출권 거래제(ETS) 개혁안이 산업 부담 경감 방향 전환 ↳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하나 여전히 상승 궤도 유지, 2029년 평균 €100 이상 예상 • 유로존 휘발유 가격 상승, 원유 외에 정유 마진 상승도 견인 — ECB 분석 ↳ 유로존 인플레이션 7월 2.9% 기록 (중동 전쟁 前 ~2% 수준에서 급등)

권역	요약
	- 유가 배럴당 ~\$90 근처 고착 가운데, 정유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 근처까지 상승해 가격 압력 추가 - ECB 블로그 분석, 8월 추가 상승 후 9월 이후 마진 하락 전망
일본 뉴스 14 건 HIGH	• 가토야마 재무장관, 오늘 일본-미국 공동 엔화 개입 공식 발표 예정 - 도쿄-워싱턴 공조 강조, 과도한 엔화 약세에 공동 대응 의지 - 영문 재무부 성명 게재로 통화 방어 결연 신호 • 일본-미국, 지난주 목·금 연속 엔화 방어 개입 → USD/JPY 40년 저점 방어 - 지난 목요일 뉴욕 시간 첫 개입 후 USD/JPY 163.00 → 157.80으로 급락, 2022년 이후 최대 낙폭(392포인트) - 지난 금요일 아시아 시간 두 번째 개입 후 160.51 → 158.90으로 추가 하락 - 일본 약 590억달러(≈8조 2,000억 엔) 규모 개입 추정 • 일본은행, 기준금리 1% 유지(지난 금요일) → 엔화 약세 재개 - 금리 인상 기대 시장 실망 → 정책 발표 직후 엔화 0.8% 추가 약세 - 일·미 금리 차가 엔화 약세의 근본 요인, 정책 변화 부재가 해결 제약 • 일본 재무부, 연준 FIMA 레포 등 광범위한 유동성 대응 도구 확보 - 미국 연준 FIMA(외국 통화당국) 레포 시설로 달러 공급 지원 가능 - 시장 유동성 필요시 활용 의지, '작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관계자 언급 • 시장 평론가들, 대규모 개입에도 근본 원인 해결 부재로 효과 제한 지적 - 금리 차·경제 펀더멘털 등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입 효과는 일시적 - 트레이더들이 개입 직후 유리한 가격에서 달러 매매수 기회로 활용 가능성 4월 말 개입(11.7조 엔/730억달러) 대비 유사 규모 재투입 중
인도 뉴스 16 건 HIGH	• 블룸버그, 인도 정부채 글로벌종합지수 편입 연기 — 세계개혁 '안착' 기간 필요 - 지난 금요일(7월 31일) 블룸버그 인덱스 서비스가 인도 정부채의 기함급 글로벌종합지수(Global Aggregate Index) 편입 결정을 무기한 연기 6월 세계개혁(해외투자자 대상 채권 이자·자본이득세 철폐)에 따른 편입 기대 있었으나, 최근 개혁 조치가 '더욱 확고히 정착'할 필요 있다는 이유로 미루어짐 - 편입 연기 여파로 외국인 지난 5일간 완전접근경로(FAR) 경유 650억 루피(\$7억) 순매도 — 채권수익률 상승 압박 초래 • 중동 분쟁으로 원유 급등, 인도 채권·통화·금리 동시 약세 - 채권: 인도 정부채 7월 4개월 만에 처음 월중 손실 기록, 벤치마크 10년물 수익률 월중 +8bps(6월까지 3개월 연 -28bps) - 통화: 루피 월중 -0.7% 약세, Brent 유 +21%, WTI 유 +18% 급등(월중) - 금리: 야간금리지표스왑(OIS) 전일 기준 1년물 5.90%(월중 +14bps), 2년물 6.07%(+16bps), 5년물 6.39%(+22bps) — 모두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 • RBI의 자본유입 조치 주효, 외환보유고 약 \$6,820억·루피 주간 최강 상승 - 외환보유고: 7월 24일 기준 약 \$6,820억(원문 \$6,823.5억), 전주 약 \$6,760억 대비 주간 +\$61억, 2개월 고점 - 자본유입: RBI가 6월 발표한 외화예금 및 스왑 등 조치로 거의 \$41억 유입(이중 은행 FCNR

권역	요약
	계정 \$36.7 억) ↳ 통화: 루피 금주 중앙은행 지속 개입으로 주간 +1% 상승(3 월 이후 최강), 7 월 31 일 95.38 루피/달러로 마감 • 7 월 GST 징수 15.4% 증가·재정 견조·에너지 정책 부분 조정 ↳ 세수: 7 월 GST 210 조 루피(약 \$220 억), 전년 대비 15.4% 증가 — 경기 기저 강도 시사 ↳ 재정: 4~6 월 재정적자 310 조 루피, 연간 목표(GDP 대비 4.3%, 1,696 조 루피) 중 18.2% 진행(전년 동기 280 조 루피) ↳ 에너지: 중앙전기규제위원회가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지연 중인 태양광·풍력·혼합형 신재생 프로젝트에 송전료 면제 제안 — 2025 년 7 월부터 폐지 진행 중인 정책의 부분 복귀 성격
브라질 뉴스 8 건 HIGH	• 브라질 12 개월 누적 예산 적자 9.99% GDP 로 2021 년 4 월 이후 최고, 이자 비용 부담 가중 ↳ 적자 규모 1 조 3,000 억 레알, 5 월 9.61%에서 9.99%로 악화, 전년 7.27% 대비 대폭 상승 ↳ 6 월 전체 예산 적자 -1,660 억 레알로 시장 예상(-1,332 억 레알)을 큰 폭 상회, 지출 기조 악화 시사 ↳ 총채무 81.9% GDP(예상 81.5%), 순채무 68.5%(예상 68.4%), 1 차 적자 -553 억 레알(예상 -498 억 레알) 모두 시장 예상 상회 • 달러 강세에 라틴아메리카 통화 약세 확대, 금속가격 하락 가운데 지역 자산 혼란 ↳ MSCI LatAm 통화지수 0.2% 하락, 콜롬비아 페소 0.7% 약세 ↳ 지역 주식은 혼란, 구리가격 약세 환경에서 자산군별 엇갈린 움직임
EM 기타 뉴스 17 건 HIGH	• 헝가리, 반세기 만의 원전 완전 중단 속 폭염 — 5 일 전력망 위기 ↳ 팩스 원전(전국 전력의 약 절반 담당)이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1978 년 이후 처음 완전 폐지 ↳ 동시 폭염으로 저녁 피크 전력 수요 급증 예상, 정부는 가정·기업·공공서에 전력 대폭 절감 요청 • 쿠웨이트, 이란 미사일 공격 요격 성공 — 정부시설 일부 손상, 인명피해 없음 ↳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이란 드론 격추에 이어 미사일 공격 감지, 쿠웨이트 방공망 전개해 차단 ↳ 타격 대상: 북부 정부시설 및 부비안섬 민간회사 차량(규모 미상) • 터키 7 월 물가, 전문가 예상 상회 — 연율 35% 수준, 이란 불안정성 영향 ↳ 이스탄불 기준 7 월 소비자물가: 연율 +35.20%, 월율 +2.06%(경제학자 설문 예상: 연율 31.8%, 월율 1.83%) ↳ 이란 분쟁 불확실성이 통화 약세를 초래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상회 • 헝가리 매자르 신정권, 친정부 기업 국가발주 특혜 제거 — 구조조정 압박 ↳ 전 오르반 체제에서 국가 인프라·공기업 사업에 우대받던 기업들의 접근 차단 본격화 ↳ 해당 기업 주가가 선거 후 반등세를 역행, 분석가들은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불가피 평가 • 이집트, IMF 2 단계 검증 통과 — \$18 억 추가지원 개시, 취약성 지속 지적 ↳ IMF 는 이집트의 국가자산 매각 진도 미흡과 공공 재정수요 대규모를 주요 위험요소로 명시 ↳ 이집트는 포스트-IMF 국가 자체 프로그램 수립 준비 중 • 남아공 6 월 무역수지, 예상의 약 5 배 초과 기록 — 외부 부문 회복력 신호 ↳ 6 월 무역흑자 177.5 억 rand(+ \$10.7 억), 시장 예상 34.5 억 rand 를 대폭 상회하며 2015 년

권역	요약
	말 이후 최대 흑자 ↳ 통화는 월말 ZAR 약세(16.5950 USD/ZAR, 전일 대비 -0.6%), 글로벌 투자심리 영향 반영 • 인도네시아 대통령, 북한 방문 공개자 역할 의사 표현 — 남북 대화 신호 ↳ 프라보보 대통령이 4 월 서울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 방문 수용 의사 표현 ↳ 인도네시아 균형외교 정책 일환으로, 구체 일정은 미정 • 러시아 곡물 로비, 우크라이나의 흑해 공격에 수출 차질 경고 —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 ↳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만·선박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곡물 수출 경로 차단 임박 경고 ↳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의 수출 중단 시 글로벌 곡물 가격 급등, 중동·아프리카 식량안보 악화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1 건	• 호주 주택가격 7 월에 2.5 년 만에 가장 큰 낙폭 기록 ↳ 국가 전체 주택가격 전월 대비 -0.7% 하락, 2022 년 12 월 이후 최대 낙폭 ↳ 연 성장률 5.3%로 급락(연초 두자릿수 수준에서), 금리 인상과 세계 불확실성이 주요 압박 요인 ↳ 시드니 -1.4%, 멜버른 -1.2% 하락으로 주도적 낙폭 기록, RBA 의 정책 우려 증가 • 캐나다 5 월 GDP 예상 상회 +0.3%, 2 분기 연율 3.4% 견조 ↳ 5 월 경제성장 +0.3%(기대 +0.2% 상회), 4 월 상향 수정 +0.6%, 6 월 추정 +0.2%; 광물·채굴·석유 가스 부문 주도 ↳ 2 분기 연율 성장률 3.4% 기록, 재화 +0.6%, 서비스 +0.2% ↳ 4 월~5 월 누적 재정적자 C\$13.6 억(전년 C\$99.1 억 대비 대폭 개선), 캐나다달러 7 월 중 1.2% 상승 후 1.4025 달러/CAD 마감 • 미국 주식 금요일 상승 —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강세로 AI 매수 복귀, 10 년물 수익률 2 년 만에 최고 ↳ 나스닥 100 선물 +1.05%, 한국 주식 +17%, 유럽 STOXX600 사상 최고가 경신; 아마존 클라우드 부문 4 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기록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4.739% 도달(2025 년 1 월 이후 최고),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우려 확대; 연준 9 월 인상 시장 평가 69%; 일본 당국 엔화 개입 신호에 환율시장 경계 ↳ 나스닥 100 지난 며칠간 3% 상승·하락 반복하는 변동성으로 AI 부흥 신뢰도와 연준 신용도에 과도 의존; 대형 헤지펀드 포지션 청산(아센브레너 펀드)으로 여타 자산군 저평가 악순환 심화 •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강경 진압, 하마스는 트럼프 협정 이행 조건 제시 ↳ 지난 금요일 서안지구 탈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최소 1 명 총살, 3 명 이상 체포; 정착민 100 명 이상 행진 진압 ↳ 하마스, 이스라엘의 트럼프 협정 비준 완료를 무기 보관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 ↳ 서안지구, 지난 3 년간 정착민 폭력 사건 급증 추세 속 긴장 고조
중국 뉴스 11 건	• 중양은행(PBOC), 유동성 충분히 유지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정책수단 시의적절 조정 ↳ 어제 공식 성명 발표, 하반기 정책 방향 결정 ↳ 해외 중양은행을 위한 외환스와프 기반 레포펀드 신설, 판다본드(위안화 채권) 발행 촉진 • 중국, 경제정책 모델에 '레드라인' 설정 — 첨단산업 중심·저소비 성장모델 지속 의지 명확화 ↳ 정치국(공산당 최고정책 결정부), 정책 연속성 강조 · 상무부, 과잉생산 논의 반박 ↳ 분석가들은 미국·EU 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 확보 조치로 평가

권역	요약
	↳ 중국의 서방 압력 대응 자신감 표시로 해석 • 중국 국무원, 원전 8 기(4 개 프로젝트) 건설 승인 — 1,700 억 위안 투자 ↳ 절강·광둥·요령·산둥 성에 각 2 기씩 배치하는 4 개 프로젝트 구성 ↳ 약 252 억 달러 규모 에너지 인프라 확충 • 중국, 필리핀의 황옌도(Scarborough Shoal) 기선 설정 거부 — '불법·주권 침해' 주장 ↳ 필리핀, 해양 기선도를 UN 에 공식 제출해 법적 확실성 강화 시도 ↳ 황옌도는 양국 모두 주권 주장하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 • 중국 군부 연구자들, OpenAI·Anthropic 등 미국 AI 모델 활용 — 국방 AI 시스템 훈련 ↳ 모델 증류(distillation) 기법으로 더 작고 안전한 버전 생성 ↳ AI 경쟁 심화 속 미중 갈등의 중심 이슈로 부상 ↳ 증류의 제한 — 대규모 첨단 AI 개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 쑤진골드인터내셔널(Zijin Gold International), 캐나다 Allied Gold 인수 포기 — \$40 억 규모 ↳ 규제당국, 자본 규율과 지정학적 위험을 이유로 우려 제기 ↳ 상품 강제장에서 해외 자원 인수에 나서던 중국 광산업체들에 대한 경고 신호
한국 뉴스 5 건	• 한국 7 월 수출 62.8% 증가로 예상을 상회 — AI 칩·컴퓨터 수요 견인 ↳ 월별 수출 약 989 억달러(전년동월 대비 +62.8%)로 로이터 설문 예상(+59.0%)을 상회, 6 월 약 1,022 억달러(동기 대비 +70.7%)에서 월간 기준 약 3% 감소 ↳ 반도체·컴퓨터 판매의 AI 투자 수요 주도과 중동 수출 6 개월 만의 증가 전환 ↳ 수입 약 686 억달러(전년동월 대비 +26.5%), 로이터 설문 예상(26.6%)과 근사, 월별 무역수지 약 303 억달러로 6 월 약 361 억달러에서 축소
남미 기타 뉴스 7 건	• 콜롬비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2% 동결, 긴축 사이클 최종 마감 ↳ 지난 금요일 현 정부 시대의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12% 동결, 시장의 0.5% 포인트 인상 예상은 빗나감 ↳ 중앙은행 7 인 이사진 중 다수가 이 결정을 지지 ↳ 국제준비자산 확충을 위해 최대 40 억 달러 규모의 외환 매입 프로그램을 동시 발표 • 콜롬비아 도시 지역 실업률 6 월 8%로 개선 ↳ 도시 실업률이 전년 동월 8.5%에서 0.5% 포인트 개선 ↳ 전국 실업률은 8%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 유지 ↳ 전국 노동력의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 지역 실업률을 시장이 더 중시
프론티어 뉴스 2 건	• 루마니아, 정부 붕괴 후 정치 불안정으로 2026 년 이후 개혁 모멘텀 약화 — Fitch 신용등급 투자등급 유지 ↳ Fitch 가 루마니아 신용등급을 BBB- (최하위 투자등급)/A-3 로 현상유지하면서도, 향후 전망(outlook)은 부정적(negative) 전환 ↳ 예산 적자가 예상 이상으로 축소되어 강제하락을 면했으나, 정부 붕괴로 촉발된 정치 불안정이 2026 년 이후 재정정책 가시성 저하 우려 ↳ 공채/GDP 비율이 2028 년 6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권역	요약
	• 스리랑카 7 월 인플레이션 +7.3%로 3 년 최고 기록 — 에너지·식품 가격 동반 상승 ↳ 콜롬보 소비자물가지수(CCPI) 7 월 +7.3%(전년동월대비), 6 월 +6.8%에서 가속화되며 2023 년 6 월 이후 최고 수준 ↳ 식품 인플레이션 6 월 3.6% → 7 월 6.3%로 급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추세 견인 ↳ 중앙은행 목표(5%) 대비 2.3%p 초과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점진적 완화 예상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